

한국숲사랑청소년단



강릉명륜고등학교



숲은 식물들이 함께 모여 사는 마을 공동체입니다.

숲은 공기를 깨끗이 정화해 주고

숲은 물의 양을 조절해서

홍수나 가뭄의 피해를 줄여 줘요.

숲은 피톤치드의 살균 작용으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해요.

숲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앞으로 우리 숲을 더욱 푸르게 보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로 해요.



김 정 복 선생님

대관령 휴양림

백두대간 줄기의 대관령 동쪽 중턱 해발 200m~1,170m의 고지대에 있으며, 전국 3대 미림으로 손꼽히는 송림지대인 만큼 수령 200~300년 이상의 소나무 및 참나무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태고의 웅장함을 간직하고 있는 기암괴석, 맑은 계곡과 폭포가 장관을 이룬다. 한국에서 최초로 개장한 휴양림이다.



숲에 대한 소개 - 김정복 선생님



강릉산불피해지 희망 나무심기

강릉·동해 250ha, 축구장(0.73ha) 면적의 34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숲이 불에 타 사라지고, 1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자리엔 여전히 그을린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잃어버린 숲의 푸르름을 되찾고자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대원들이 희망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하여 소나무 2년생 묘목 1,500본을 강릉시민들과 함께 희망을 심고 왔습니다.











이 택 근 학생

① 숲에 대한 소개 - 이택근 학생

옛날에, 한양 가는 길에 오른 사람들에게겐 갈 길을 막는 거구의 강패였을 대관령이지만, 지금은 더없이 소중한 우리의 허파쥬. 산 굽이굽이 거미줄처럼 난 숲길로 정처없이 떠나면 길을 잃을 것만 같은 대관령 숲. 어느 길로 어떻게 가든 그 길이 정답이 되는 곳, 물론 정답이 집에 가는 길이 아닐 수도 있지만요. 아름다운 소나무가 펼쳐진 곳부터, 끝없이 펼쳐지는 산 굽이 너머 도회지가 보이는 곳, 산의 허리를 뚫고 지나가는 고속도로 교량도 보이는, 참 가까이에 있던 주옥 같은 숲이거늘, 왜 이때까지 와 보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대관령숲에서의 시간은 나뭇잎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처럼 따뜻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푸르른 나무의 숨결로 스스로를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답니다.

아름다움 숲이면서 동시에 배려심 있는 숲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완만한 길로 되어 있고, 굽이져 있거나 숨막히게 좁은 길도 없어서 어느 길로 가든 내 다리가 비명을 지르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나 산림욕의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숲이란 말이죠. 저도 저질체력이라 산길에 약한 편인데, 대관령 숲만큼은 편하게 걷고 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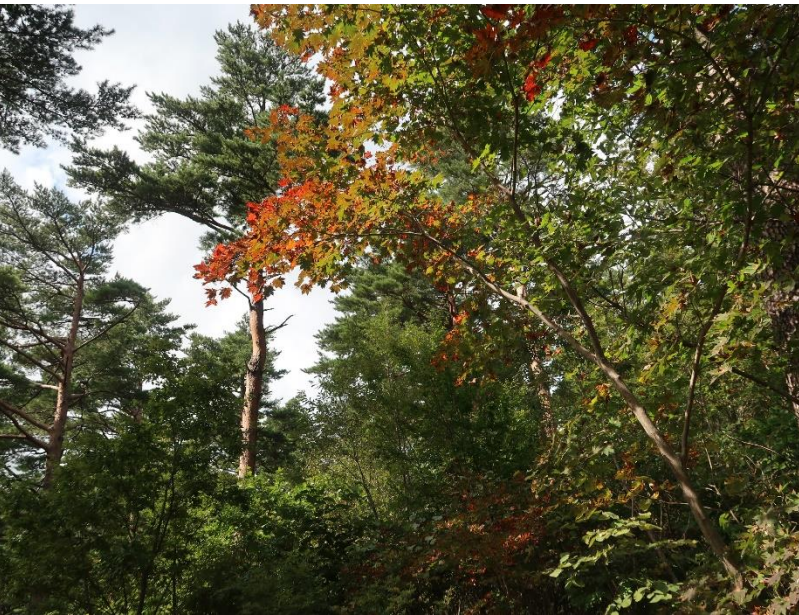


숲은 왜 푸르을까요? 하늘도 파랗고, 숲의 나무와 풀도 초록빛깔을 뽐내는데, 왜 하필 그 많은 색들이 있는데. 식물은 엽록소 때문에 푸르다고요? 아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겠네요. 근데 전 과학 문외한이니까, 조금 다른 답을 제시해 볼게요.

“숲은 언제나 Green Light.”

저걸 지금 대답이랍시고 하냐며 비아냥거리기 전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도로를 건널 때, 파란불로 바뀔 때까지 빨간 불에 한참 발이 묶이고, 학교에 숙제를 해 갔더니 선생님께서 “이게 뭐냐!”라는 비난을 들으며 내 얼굴을 붉히고, 회사에서 잠깐만 좋아도 얼굴이 시뻘게진 상사가 욕을 퍼붓는 치열하고 힘겨운 Red Light의 삶을 살아온... 아니 견뎌온 우리들. 숲은 알고 있었나 봐요. 우리가 어딜 가든 이곳 저곳에 치여 살아간다는 걸요. 그래서 Green Light. 숲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잖아요. 숲에서는 뭘 하든 나무가, 풀이 화를 내나요, 불평을 하나요. 그저 바라보며 수고했다고, 힘들었다고 말을 걸어주는 숲.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근데 저는 숲이 하는 그런 말들이 들리더라고요. 설령 그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더라도, 숲에 가서 잠시나마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역시 숲의 무한 Green Light에 위로받은 사람일 거예요.

Green만 있는 건 아니죠. 하늘도 있잖아요. 제가 간 날의 하늘은 그냥 하나의 예술작품 같았죠. 그냥 파란 하늘이 아니라 눈부신, 세련된, 아름다운 파랑. 제가 표현력이 후달려서 그 때의 느낌을 제대로 전할 수 없어서 아쉬울 따름이네요. 근데 하늘이 항상 이런 건 아니죠. 어떨 땐 구름이 끼고, 비가 오기도 해요. 이게 또 하늘의 매력이죠. 이래저래 제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분신술 같은 능력. 물론 어떤 모습이든 예술이라는 건 변치 않지만요. 개인적으로 다음에는 보슬비가 내릴 때 가 보고 싶어요. 비가 내리면 우울하다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비가 올 때, 그동안 이 세상에 쌓여 있던 케케묵은 때가 씻겨 내려간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비 오는 날 걷는 걸 좋아해요. 온 세상이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고 할까요? 우리가 새 옷 입을 때 그 포근함, 상쾌함이 느껴지는 때, 숲을 거닐면, 상상이 안 돼요. 얼마나 좋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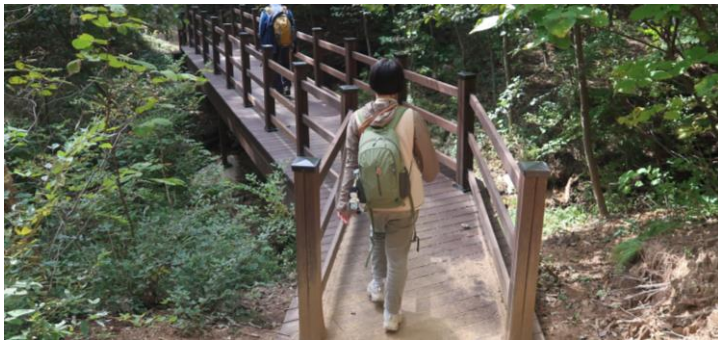


혹시 초록색이나 파랑색을 안 좋아하시나요? 우리 착한 숲이 이렇게 말하네요.

“너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 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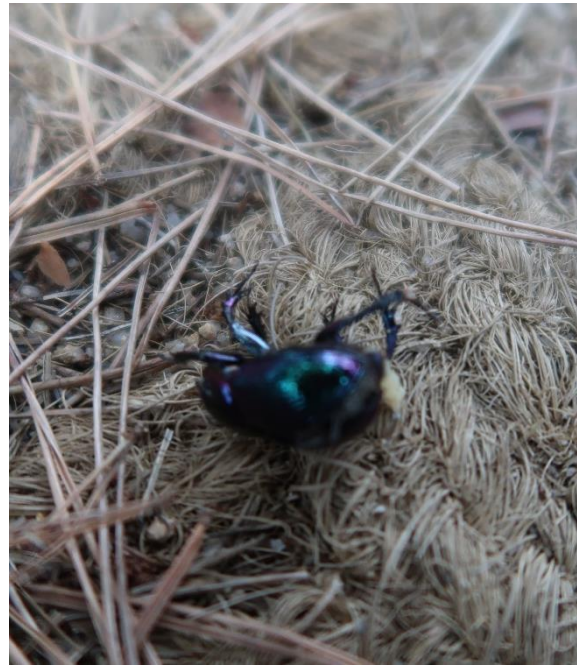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고, 하늘도 마찬가지로지만, 중간중간에 단풍이 드는 나무들, 살포시 피어난 꽃은 또다른 색으로 우리 눈을 즐겁게 한답니다. 붉게 물들어가는 나무는 어느새 무르익는 한 해를 되돌아보게 하고, 보랏빛 꽃잎을 피운 꽃은 강인함과 고귀함을 느끼게 해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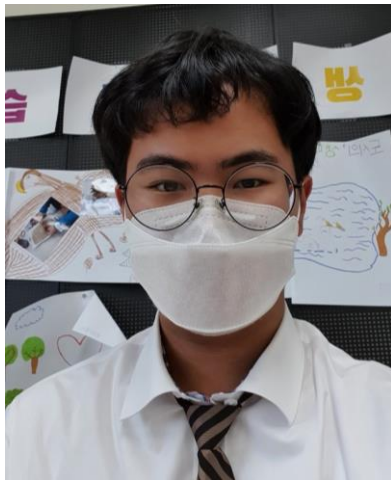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숲에서 배울 수 있는 인생의 지혜와 성찰이 있다고. 대관령 숲을 비롯해 여러 숲을 다니다 보니, 그 말의 뜻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삶에는 아주 많은 길이 있겠죠. 그 많은 길 중에 확신 반, 걱정 반으로 하나의 길을 선택해서 해쳐 나가다가, 또 다른 갈림길에서 같은 고민을 반복하는 게 삶이라면, 숲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숲에도 많은 길이 있고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열심히 오르죠. 같은 숲이라도 가는 길이 바뀌면 경험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곤 하지만, 우리가 끝끝내 만나게 될 고지는 모두에게 열린 공통의 성취감, 행복감, 부딪힘을 주죠.

삶도 그렇잖아요. 나와 내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갈 길은 전부 제각각일 거예요. 각자가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이 때까지 걸어온 길도 다르니까요. 그치만 모두의 삶의 목표는 하나죠. 행복. 행복이 곧 숲의 정상이 아니겠어요? 어차피 같은 목표를 향해 오른다면, 우리는 왜 서로를 배척하고, 멀리하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할까요? 그저 서로의 다른 길을 이해하고, 마음의 손을 잡고서 정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 되지 않을까. 왜,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숲은 그 사실을 넌지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숲의 길과 정상이, 나무와 꽃이, 짐승과 곤충이, 흐르는 물과 흙 길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게 좋다는 걸. 그래서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바라니까요. 숲은 좋은 건 모두가 나눠 갖길 바라니까요.



흘러 넘치는 계곡물, 예쁜 얼굴로 우리 발을 붙잡는 꽃,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곤충의 모습. 숲의 강력한 생명 에너지에 압도당하며, 저도 그에 상응하는 에너지를 발휘하려고 했지만, 뭐 하나 숲에 이기는 게 없으니. 때론 사람들은 자기들이 숲을 완전히 제패했다고 허무한 착각에 빠지곤 하지만, 노래 몇 곡 부르면 질리는 사람이, 스스로의 모습에 자신이 없어서 온 몸에 끊임없이 손을 대는 사람이, 작은 위기에도 절망하고 두 눈과 귀를 틀어막는 사람이 숲을 제패했다고 하면, 당사자인 숲은 기가 막혀서 숨구멍을 막고 물길을 막아버리겠네요. 그래요, 사람은 숲을 절대 이기지 못해요. 숲은 우리의 스승이거든요. 청출어람이라고 하지만 이 경우만큼은 예외예요. 살아온 시간의 단위부터가 다른 데 뭘 수로 쪽빛을 내뿜겠다는 건지. 그럼에도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져서 숲에 막무가내로 연장을 들이치는 어리석은 짓을 일삼으니, 숲이 기가 막히고도 남죠.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숲과 함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요? 받은 은혜만큼 되갚는게 인지상정, 우리 사람의 도리니 만큼, 내가 숲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뭘까, 고민해보게 되네요.

일단, 고맙다는 말부터 해 줘야겠네요. “고맙다, 사랑하는 숲아.”



서 창 건 학생



서문

강릉은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기로 유명합니다. 그야, 팔도 중에서 가장 큰 덩치에, 그 덩치의 대부분이 산천이요, 등뼈처럼 아름답게 굽은 한반도의 백두대간이니까요. 여기에 흙이 불고, 풀이 영키고, 꽃과 벌레와 계절이 날아들어 아름답고, 말 그대로 참 좋은, 대관령 같은 산천 산수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지질학적 관점에서) 시간이 지나며 이런 산천, 산수에 사람들도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산천에 날아들며 산을 보고, 걷고, 오르고, 즐겼습니다. 산에 살기도 했고, 산의 광경을 예술작품으로써 지어내기도 했습니다. 산의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리하여 숲의 세계에 사람들도 발을 들이게 되었고, 두 주체간의 교류는 서로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9일, 강릉명륜고등학교에서 온 학생들과 선생님, 강릉 미디어 센터와 생명의 숲에서 온 분들이 모여서 대관령 삼포암을 지나 강릉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식사 시간을 가졌던 곳에 있는 전망대까지 산을 올랐습니다. 산을 오르며, 저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을 저희도 알고, 이 책을 읽는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엮었습니다.



좋은 풀, 좋은 물이 굽는 산천



산은 풀과 물이 가득한 장소입니다. 시골의 원류죠. 강릉의 원류이기도 하고요. 물을 가득 머금은 산에서는 온갖 풀과 나무들이 자라나고, 시원한 계곡이 만들어집니다.(들어갈 수는 없지만.) 물을 가득 머금은다는 것. 이 점이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이 물을 가득 머금었기에 풀과 나무들이 그 위에 자라나고, 또 풀과 나무들이 자라났기에 동물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고, 또 찾아오는 것 아닐까요? 물을 머금고 있다는 사실이 산의 모든 풍요의 근원인 것이지요. 우리도 물을 가득 머금은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생명이 자라날 수 있다면, 그래서 또다른 생명이 그것을 보금자리로 삼을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어떨까요? 물론 모두가 제 몸 간수하기도 힘든 요즘에는 꿈 같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머금고 있다는 것은 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마음을 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머금은 마음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을 때가 오지 않을까요? 그때까지 타임캡슐처럼 고이 머금어 보자구요.





하늘과 어울리다



날씨가 좋으면 파란 하늘 아래 모든 것들은 금색 햇살을 받습니다. 숲도 예외는 아니지요. 그럴 때면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또,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과도 어우러지는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늘과 숲이 어울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가는 길은 저로서는 굉장히 힘든 길이었습니다. 완만한 숲길을 걷고 있던 제 앞에 갑자기 나타난 가파른 오르막 위에서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다리는 너무나도 무겁고 아팠습니다. 오르막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오르고 계속 올라도, 그 너머에서부터 완만한 길이 펼쳐질 그 지점은 너무나도 멀어 보였습니다. 올라가다 여러 번 쉬어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르막은 결국 끝났습니다. 걷다 보니 오르막은 결국 끝났어요. 계속 걷다 보니 끝났습니다. 그냥 걸었을 뿐. 그리고 저희는 하늘과 숲의 어울림을 볼 수 있는 곳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산을 오를 때, 제 마음 상태가 어떨든, 제 다리만은 계속해서 움직였던 것이 기억납니다.

계속 걷는다는 것. 힘들더라도, 걸어야 한다면, 내리막이 보일 때까지 걸어보는 것일까요.



산, 그 또 하나의 세상

시인 T.S. 엘리엇은 “시는 감정의 해방이 아닌 감정으로
부터의 탈출”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숲으로 힐링하러
탈출해왔죠. 감정의 변화를 얻기 위해서요. 그리고 실제로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며 변화를 얻죠. 그렇다면 숲이 시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숲의 자연은 언제나 영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추측이지만, 산은
항상 무언가를 노래하거나 읊조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한 번 들어볼
수만 있다면..





숲에 들어간 사람들

숲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였지만, 숲의 입장에서는 아주 최근입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 동안, 사람들은 숲을 가꾸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죠.

숲은 사람들에게 그 장소 자체와, 맑은 공기, 튼튼한 목재, 겨울을 날 땀감 등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숲에게 주는 것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숲의 식생들이 잘 자라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고 있고, 실제로도 필요한 관리입니다. 하지만 요즘 숲에게 줄 선물로 가장 인기있는 것은 아무래도 플라스틱이죠.

요즘 숲에는 플라스틱이 참 많습니다. 대관령은 아니지만, 지난 경포호 둘레의 산길을 다녀왔을 때 어쩌다 쓰레기를 줍게 되었는데, 살충제 병을 비롯한 쓰레기들이 종량제 봉투 하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숲과 우리 사이의 주고받는 관계는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요?



가을이 되면 나무는 왜 수줍음을 탈까요 ?

의 잎은 엽록소의 색깔로 인해 녹색을 내는데, 가을이 되어 기온이 떨어지면 소가 사라지고 붉은색등을 나타내는 물질





나무에서 떨어진
씨앗,
우리의 심장 가장
여린 곳에
뿌리 내리고
발아하기를.

숲은 알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어쩔,
그렇게 아무런지 않게
그 일을 해낼까?





이택근 학생

“ 서로에게 힘이 되는 좋은 친구가 되자!
그렇게 처음 했던 다짐을 되새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특별히 숲을 좋아하거나 하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그 연장선으로 숲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 거였어요. 무언가를 지켜나가려면 그걸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숲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숲과 놀고,



말을 놓을 수 있으면서 저의 친한 친구들, 사귀지 못한 일 같은 걸 하염없이 쏟아내도 닳아주려고 생각했던 물이었어요. 숲이 탄닥이 되어주는 숲. 그 뿐인가요? 가는 걸 틈틈이 털 꽃으로, 작은 새싹으로 응원해주고, 가만히 눈 감고 서 있으면 신선한 공기로 힘을 불어넣어주죠. 이런 친구 어디 있나요, 그저 고맙고 미안할 뿐. 그렇다면 저도 숲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하겠죠!

김정복 선생님



안녕하세요. 숲을 좋아하여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수목이 울창한 숲을 걸으면 마음이 상쾌해 집니다. 산림내 청정한 공기를 만나고, 새소리와 물소리 그리고 자연이 주는 해방감 스트레스를 단시간에 줄여주는 효과로 인해 심신의 안정 및 편안함을 주는 것이 피톤치드입니다 그 속에서 발산하는 피톤치드를 만나러 대관령 숲을 찾게 되었습니다.



서 창 건 학생

“ 고맙습니다, 대관령!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껏 다녀온 모든 산들!
고맙습니다, 강릉 숲사랑 청소년단과 함께 해주신 모든 사람들! ”

숲은 그 자체로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주는 것 같습니다. 자연은 제 안에서 환기와 영감, 미적 만족을 나게 해주었습니다. 혹은 힘듦과 숨참, 흔들림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형태 없이 제 안에서 났습니다. 대관령, 숲, 산은 누군가의 가르침 없이, 제가 스스로 느끼고 떠올릴 수 있게, 체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체감의 기회를 주는 것은 참으로 귀중하고, 고맙지 않을 수 없다고 느낍니다.

